
출장보고서

Global Solutions Summit 2025 참석

2025. 5. 14.

KDI 글로벌·북한경제연구실

1 출장 배경 및 목적

- (배경) KDI는 한국 연구기관으로는 최초로 G20의 참여그룹인 T20에 가입하여 G20 정상회의 의제 개발을 지원
 - KDI는 G20 내 다자 협력 구조에서의 정책 기여와 참여 확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
 - 이에 T20 세션을 중심으로 G20 차원의 논의를 점검하고, 국제경제질서 변화 대응, 정책 연계성 확보, 전문가 네트워크 강화 등 다층적 효과 기대

- (목적) “Global Solutions Summit 2025(GSS 2025)”에 참석하여 G20 차원의 글로벌 주요 이슈 및 정책 동향에 대한 현장 정보 점검 및 논의에 참여
 - T20 세션을 통해 G20 의제 형성 과정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정책 제안 채널 확보
 - 현재 본실에서 지원 중인 2026년 G20 재무트랙 관련 주요 의제 논의에 실질적 기여 기반 마련; 국제금융(IFA), 지속가능금융(SFWG), 신흥국의 디지털·AI 활용(FWG) 논의에 참고

2 출장 개요

- 출장지 및 기간
 - 출 장 지: 독일 베를린
 - 방문기관: ESMT Berlin (European School of Management and Technology Berlin)
 - 출장기간: 2025년 5월 4일(일)~ 5월 8일(목), 3박 5일

- 출장자
 - 글로벌·북한경제연구실 채단비 전문위원

- 주요활동
 - 포럼명: Global Solutions Summit* 2025(GSS 2025)
 - 일 정: 2025년 5월 5일(월) ~ 5월 6일(화)
 - 주 최: Global Solutions Initiative(GSI¹⁾)
 - 주 제: Bridging Divides: New Pathways for Global Prosperity

1) GSI는 2017년 G20 독일 회의에서 설립, G7/20 국가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연구를 수행 (KDI는 2022년 GSI와 MOU 체결)

3 출장 일정

일자	시간	주요일정	비고
5/4(일)	08:30~19:20	인천 → (경유)파리(AF267) → 베를린(AF1534)	5/4 08:30(인천출) ~ 15:15(파리着) ~ 5/4 17:40(파리출) ~ 19:20(현지着)
	09:20~18:00	DAY1. GGS 2025	
5/5(월)	10:30~11:30	(T20세션) AI와 미래의 업무: 불확실성 시대의 회복력을 재구상하다	ESMT Berlin
	13:15~14:00	다자주의 개혁과 국제금융 구조	
	14:00~15:15	(T20세션) 분열된 세계에서의 글로벌 동맹	
	16:45~18:00	(T20세션) 접근성, 회복력 및 번영: 아프리카의 에너지 전환	
	10:00~19:00	DAY2. GGS 2025	
5/6(화)	10:00~11:00	G20 20주년: 변화하는 세계 속 G20의 미래	ESMT Berlin
	11:15~12:15	(T20세션) 다자주의의 변화하는 지형: 세계 권력 이동의 탐색	
	12:30~13:30	T20 회의	
	14:00~15:30	(T20세션) 다가오는 국가 부채 위기 예방	
	15:30~16:30	(T20세션) 혼란속에서도 여전히 견재하다: 세계 무역 체제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?	
	12:00~14:00	출국 준비	
5/7(수) ~ 5/8(목)	16:15~15:30 ⁺¹	베를린(AF1235) → (경유)파리(AF5092) → 인천	5/7 16:15(베를린출) ~ 18:05(파리着) ~ 5/7 20:30(파리출) ~ 5/8 15:30(현지着)

4 활동 내용

□ GSS 2025 개요

- GSS 2025는 글로벌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,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
- GSS 2025에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 분야에 대한 논의를 총 36개 세션으로 진행
 -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성: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및 전략 논의
 - 디지털 및 AI 혁신: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의 발전이 가져오는 도전과 기회 탐색
 - 지정학 및 무역: 글로벌 무역 질서의 변화와 지정학적 갈등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
 - 글로벌 금융: 국제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강화 방안 논의
 - 글로벌 거버넌스 및 다자주의: 다자주의의 회복과 글로벌 협력 체제 강화 방안 탐색
 - 인간의 번영: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인간 중심의 발전 모델 구축 논의

□ 오프닝 및 기조연설

- Dennis J. Snower(Founder and President, GSI)는 다자주의와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,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협력 모델을 모색해야 할 시기를 강조
 - 세계가 다극화되고, 국가 간 이해가 갈수록 복잡해지는 지금이야말로 포용적이고 실용적인 다자주의의 재정립이 절실하다고 강조
 - 기후, 금융 안정, 팬데믹 대응, 디지털 윤리 등 글로벌 공공재는 국가 단독 해결이 불가능한 과제로, 이를 위해 각국 정부, 시민사회, 기업, 학계가 함께 참여하는 협업 기반의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
 - 사회적, 경제적, 기술적, 지정학적 분열이 심화되는 상황에서, 단순한 이해관계 조율을 넘어서 공동의 목적(shared purpose)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글로벌 계약(social contract)의 필요성을 언급
 - 경제 성장률이나 단순한 GDP 중심 지표가 아닌, 사회적 연대, 인간 존엄, 환경 회복력을 모두 포괄하는 새로운 '번영 프레임워크'의 필요성을 강조
- Alaa Murabit(Executive Director of Sustainable and Resilient Growth)는 글로벌사우스의 기후위기와 이로 인한 경제/사회적 불평등 심화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제시
 - 기후 위기를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, 경제적·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며,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과 다자간 정책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
 - 기술 발전이 초래하는 혼란과 불평등에도 불구하고, 올바르게 설계되고 적용된다면 AI와 디지털 기술은 기후 대응, 교육 격차 해소, 보건 접근성 향상 등 글로벌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설명
 - 본 포럼이 혁신적 기술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협업 모델을 모색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

- 최근 G20을 비롯한 주요 국제 포럼에서 글로벌 불평등 해소가 주요 의제로 부상한 만큼, 구호 수준을 넘는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
- 특히, 글로벌사우스 국가들과의 동등하고 존중 기반의 협력을 통해 포용적 성장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

□ 주요 세션

(1) T20 Session: AI and the Future of Work: Reimagining Resilience in an Age of Uncertainty (T20 세션: AI과 업무의 미래 불확실성의 시대에 회복탄력성 재구상)

- 일시: 5월 5일, 10:30-11:30
- 좌장 및 토론자
 - (좌장) Ron Ivey, GSI Fellow
 - Matt Prewitt, President, RedicalxChange
 - Ana Dujic, Director General, German Federal Ministry of Labor and Social Affairs
 - Anita Gurumurthy, Founding Member and Executive Director, IT for Change
 - Aart Jan De Geus, Former Minister of Labor, the Netherlands
 - Emily M. Dickens, Chief of Staff, Head of Government Affairs, and Corporate Secretary, Society for Human Resource Management
- 배경 및 문제의식
 - 생성형 인공지능(GenAI)을 포함한 인공지능 기술은 아직 생산성 측면에서 그 잠재력이 확정되지 않았지만, 이미 급속히 노동시장과 일의 본질을 재편하고 있음.
 - 특히 고객 서비스, 사무직, 프로그래밍, 디지털 아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 자동화가 진행 중
 -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,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재구성을 요구
- 도전과제
 - 이상적으로 GenAI와 미래의 인공일반지능(AGI)은 인간의 역량을 보완하고 증강해야 함.
 - 그러나 이는 자율적으로 실현되지 않으며,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, 그리고 강력한 정책적 보호장치와 책임 있는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함.
 - 특히 자동화로 인한 고용 불안, 교육 불균형, 기술 격차 등은 긴급하게 대응해야 할 문제
 - 더불어, 글로벌 관점에서 기술 변화는 글로벌 사우스(개발도상국)와 글로벌 노스(선진국) 간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음.

- 따라서 기술 발전의 혜택이 모든 국가와 계층에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, 국제적 정책 협력, 포괄적 거버넌스 프레임워크, 지속가능한 기술 접근성 보장이 필수

○ 핵심 이슈

- 자동화의 현주소와 사례: 콜센터, 고객 응대 업무에서 챗봇과 음성인식 AI의 도입하는 추세이며, 프로그래밍 보조 도구(GitHub Copilot 등)에 의한 코딩 업무의 구조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. 언론, 마케팅, 디자인 영역에서의 콘텐츠 생성 AI의 확산 현상이 확인됨.
-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: 저숙련-중숙련 일자리의 대체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으며, 디지털 격차에 따른 노동시장 내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, 이로 인한 비정규직, 프리랜서, 플랫폼 노동자의 불안정성 심화 현상도 확인
- 교육 시스템의 재설계 필요성 증가: 문제 해결, 창의성, 윤리적 판단 등 AI로 대체 불가능한 인간 능력 강화 및 디지털 기반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제기
- 디지털 불평등 문제: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인프라와 기회 자체의 차별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기술교육 접근성 보장이 필요
- 노동권과 복지의 재구조화: 기본소득 또는 보편적 서비스 접근권 도입 논의가 소수 국가를 중심으로 진행, 유급 노동 외의 돌봄, 자원봉사 등의 가치 인정이 필요, 특히 노동자의 데이터권, 알고리즘 투명성, 집단 협상권 확보 필요
- 기술 주도권의 편중: 미국, 중국, EU 등 기술 선진국의 독점적 지위 강화 및 글로벌 사우스 국가의 기술 종속, 데이터 주권 침해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.
- 기술 식민주의와 데이터 추출: 데이터는 대부분 글로벌 사우스에서 생성되지만, 가치 창출은 북반구 기업에 집중, 데이터 윤리, 공정한 AI 학습 데이터 확보에 대한 국제적 논의 필요

○ 결론

- AI 시대의 변화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인간 중심의 접근이 필요
- 포괄적이고 형평성 있는 대응을 통해 지속 가능한 기술 사회로의 이행 가능
- 본 세션은 이러한 문제의식과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, 다자간 협력과 정책적 상상력을 촉진할 것

(2) Geopolitical Challenges to Industrial Decarbonization (산업 탈탄소화에 대한 지정학적 도전 과제)

○ 일시: 5월 5일, 11:30-12:30

○ 좌장 및 토론자

- (좌장) Katie Gallus, International Moderator and Journalist
- Ingrid Gabriela Hoven, Managing Director, 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GmbH
- Henry Wang, President, Center for China and Globalization (virtual)
- Isabelle Durant, Former Deputy Secretary-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
- Amar Bhattacharta, Senior Fellow, Global Economy and Development, Center for Sustainable Development, Brookings Institute

○ 배경 및 문제의식

- 전 세계는 현재 기후 위기 대응과 동시에 경제 구조의 탈탄소화를 추구
-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지정학적 갈등, 무역 불안정, 공급망 위기, 중요 광물에 대한 수요 급증 등의 요인으로 복잡하게 얽히고 있으며, 특히 제조업·광업·운송업 등 에너지 집약적 산업의 지속가능한 전환에 큰 도전이 되고 있음.
-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과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(SDGs)의 달성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글로벌 공급망 없이는 불가능
- 다만, 공급망의 지역화, 보호주의 강화, 새로운 남남 협력 및 지역주의의 부상은 자유무역체제의 미래와 에너지 안보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

○ 도전과제 및 핵심 이슈

- 무역 긴장 및 관세 전쟁: 미·중 갈등, 유럽과 기타 지역 간 산업 보조금 경쟁
- 지정학적 갈등: 우크라이나 전쟁, 중동 불안정, 대만해협 이슈 등으로 인한 자원 흐름 차단
- 주요 광물 수요의 폭증: 리튬, 코발트, 희토류 등 청정 기술에 필요한 자원의 경쟁 심화
- 청정 기술의 지역화와 에너지 안보: 주요국은 자국 내 청정 기술 생산시설 유치와 친화국 중심 공급망 (Friend-shoring) 전략을 강화, 이는 공급망의 회복탄력성에는 기여하지만, 비용 증가, 기술 이전 둔화, 글로벌 협력 약화라는 부작용 초래
- 재생에너지 접근성 부족과 높은 비용
- 저탄소 기술 및 장비의 공급 지연
- 탄소국경조정제도(CBAM) 등의 무역규제가 추가 부담으로 작용
- 개도국은 자금, 기술, 역량 부족으로 가장 큰 타격

○ 결론

- 핵심 자원 공동 비축 및 공급 협약 체결: 중요 광물에 대한 다자간 전략적 비축 체계 구축 (예: 국제 리튬 협력기구) 및 친환경 공급망 구축을 위한 글로벌 공조 및 지역 협력체계 강화
- 에너지 집약 산업의 저탄소 전환 지원: 수소 기반 생산, 탄소포집(CCUS), 전기화 열처리 기술 등에 대한 글로벌 공동 개발 및 저탄소 제품에 대한 글로벌 시장 접근성 보장 및 저탄소 기준에 대한 공통된 국제 표준 수립
- 에너지 안보와 지속가능성의 균형: 특정 국가 또는 연료에 대한 의존도 완화, 태양광·풍력·지열 등 지역 맞춤형 기술 확대 및 탄소국경조정조치(CBAM) 등 기후무역조치의 투명성 확보 및 무역규제 도입 시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·재정적 지원 병행
- 탈탄소화 관련 데이터 및 기술의 글로벌 공유 촉진: 개방형 기술 플랫폼, 공공-민간 파트너십(PPP)을 통한 정보 공유 강화

(3) T20 Session: Global Alliances in a Fragmented World (T20 세션: 분열된 세계에서의 글로벌 협력)

○ 일시: 5월 5일, 14:00-15:15

○ 좌장 및 토론자

- (좌장) Maiara Folly, Executive Director and Co-Founder, Plataforma CIPO
- Sachin Chaturvedi, Director General, Research and Information System for Developing Countries
- Babang Brodjonegoro, Dean, 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
- Alexander Gabuev, Director, Carnegie Russia Eurasia Center
- Elizabeth Sidiropoulos, Executive Director, South Afric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
- Patrick Costello, Managing Director, Mercury Public Affairs

○ 배경 및 문제의식

- 기후 변화, 불평등, 팬데믹 대응, 디지털 전환, 지정학적 분열 등 전 지구적 도전 과제는 점점 더 복잡하고 상호 연결된 양상을 보이고 있음.
-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주의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, G20과 BRICS는 두 축의 글로벌 연합체로서 국제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데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차지
- G20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국제 경제 협력을 위한 주요 포럼으로 자리잡았고, BRICS는 신흥국 중심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국제 질서의 다극화를 촉진

- 하지만, 이 두 동맹이 서로를 어떻게 보완하거나 경쟁하며, 글로벌 공공재의 제공과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(SDGs) 달성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임.

○ 도전과제 및 핵심 이슈

- G20의 진화와 향후 의제: 디지털 공정성, 녹색 전환, 국제 조세 회피 대응, 다자개혁 논의가 중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나, 우크라이나 전쟁, 미중 경쟁 등의 지정학적 대립으로 공동 성명 도출 어려움 지속
- BRICS의 확장과 전략 변화: 2023년 요하네스버그 정상회의에서 확대 BRICS("BRICS+") 채택 이후 '비서구 중심' 세계질서를 모색하는 신남남협력(south-south solidarity) 강조되고 있으며, BRICS 개발은행(NDB)을 통한 대안 금융, 독자적 결제 시스템 구상 등 실행력 강화가 시도되고 있음.
- 그러나 내부 이질성(정치체제, 외교노선)으로 인해 정책 합의의 제약 존재
- 공통의 글로벌 공공재 이슈에서 공동 행동 촉진: 특히 기후 재원 공동 조성이 필요한데, 녹색기후기금(GCF), NDB, G20 GFANZ 등을 연계한 민관 융합 투자 플랫폼 설계 및 보건 위기 대비 글로벌 대응 메커니즘 구축 필요
- 식량·에너지 안보 협력체계 강화: 곡물 수출국·수입국 간 비상 공급 체계 및 가격 안정화 협약 마련
- 제도적 연계와 다자주의 기반 확대: 국제금융기구 개혁 공동 아젠다 개발을 위한 IMF, WB 내 개발도상국 의결권 확대를 위한 공동 로드맵 수립 필요
- 디지털 거버넌스 연계: 데이터 주권, 디지털세, AI 규범 등에 대한 공동 포럼 운영 등의 방안 필요
- G20-BRICS 정책대화 채널 공식화: 연례 정책 토론회 또는 전문가 네트워크 형식의 상설화 추진
- SDGs 중점 분야(교육, 건강, 에너지)에 공동 투자 유도: '글로벌 SDG 프로젝트 펀드' 설립 제안 (BRICS 은행 + G20 개발 금융기관 참여) 및 개도국 기술 이전과 교육 인프라 지원 확대

○ 결론

- G20과 BRICS는 각기 다른 구조와 전략적 비전을 지니고 있지만, 글로벌 거버넌스의 복원과 재구성을 위한 중요한 양대 축으로 기능
-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두 동맹이 경쟁을 넘어 제도적 보완 관계로 전환하고, 공동의 글로벌 아젠다에서 실질적인 공동 행동으로 발전해야 할 필요
- 특히 SDGs 실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중심으로, G20의 자본력과 정책 프레임, BRICS의 현장성과 대안적 시각을 결합할 수 있는 새로운 다자 협력 패러다임이 절실

(4) G20 at G20: The Future of the G20 in a Changing World (변화하는 세계 속 G20의 미래)

○ 일시: 5월 6일 10:00-11:00

○ 좌장 및 토론자

- (좌장) Andreas Schaal, OECD Sherpa and Director; Global Relations and Cooperation Directorate, OECD.
- Navid Hanif, Assistant Secretary-General for Economic Development; UN sous Sherpa to the G20
- Federico Pinedo, G20 Sherpa, Argentina
- Emma Maria Aparici Vazquez De Parga, G20 Co-Sherpa and Secretary General of Foreign Affairs, Office of the Prime Minister, Spain.
- Henrik Harboe, G20 Sherpa, Ministry of Foreign Affairs, Norway
- Abhishek Singh, Sous-Sherpa for G20, BRICS, IBSA(India, Brazil, South Africa forum), and the Ministry of External Affairs, India.
- SaraSilva, AU Sous-Sherpa to the G20; Director for Multilateral Affairs, Ministry of External Relations of Angola

○ 배경

- G20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정상급 포럼으로 격상된 이래, 국제 경제 협력의 중심 플랫폼으로 기능
- 그러나 최근 세계 정세는 다극화, 지정학적 갈등, 공급망 분절, 디지털 격차, 기후 위기 등 점점 더 복잡하고 세분화된 과제들로 인해 국제 협력 구조의 유연성과 대응력이 필요
- 이번 세션은 OECD와 공동으로 기획되었으며, G20 세르파 및 부 세르파 간 협의의 장으로, G20의 구조적 강점과 한계를 평가하고, 향후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혁 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음.

○ 도전과제 및 핵심 이슈

- 글로벌 금융 안정화: 2008년 이후 금융시장 규제 강화, 금융안전망 확충, IMF 자금력 확대 등의 조치 주도 및 금융안정위원회(FSB), 바젤 III 등의 제도화에 실질적 기여
- 포용적 성장 및 개발 아젠다 확대: G20 개발 워킹그룹, 인프라 투자, 디지털 금융 포용, 여성 경제 참여 확대 등의 의제를 설정하고, 저소득 국가 부채 관련 논의와 채무 지속가능성 프레임워크 마련 필요
-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성: 녹색 전환, 탄소 중립 선언, 에너지 전환 협력 강화가 필수, 다만 구속력 있는 합의보다는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는 경향 지속
- 운영 방식의 복잡성과 불균형: 순회 의장국 체제로 인해 의제 연속성과 리더십 일관성 부족과 세르파/금융 트랙 간의 정책 연결성 미흡, 공식 사무국 부재로 인해 제도적 지속성 한계
- 대표성과 정당성 문제: UN, WTO 등 글로벌 거버넌스 구조와의 조율 부족 및 아프리카연합(AU)의 가입

은 진전이나, 여전히 소외된 저소득 국가 그룹 존재

- G20 상설 사무국 또는 '의장국 트로이카+1 체계' 공식화: 정책 일관성과 제도적 기억(storage of institutional memory) 확보
- 세르파-금융트랙 간 구조적 연계 강화: 공동 아젠다 설정 및 연례 이행 보고서 공동 발간 제안
- 워크스트림 간 협업 메커니즘 제도화: 기후-무역, 디지털-금융 등 교차 이슈 대응 가능성 확보
- 글로벌 거버넌스 기관과의 연계 강화: OECD, UN, IMF, WHO 등과의 연계적 정책 동기화(platform alignment) 강화
- 공식 이행 점검체계(Review Mechanism) 도입: 각국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공동 점검 결과 기반의 글로벌 공공재 프로젝트 추진

○ 결론

- G20은 여전히 세계 경제의 약 80%를 대표하는 핵심 플랫폼이지만, 그 유효성은 구조적 개혁, 대표성 강화, 실질적 성과 창출을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음.
- 특히 OECD 및 다른 다자기구와의 협업을 제도화하고, 정책 연속성과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갖춰야 함.
- 이번 세션은 G20이 단순한 협의체를 넘어, 미래 지향적이고 실행력 있는 글로벌 거버넌스 플랫폼으로 발전하기 위한 전략적 기초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필요

(5) T20 Session: The Changing Landscape of Multilateralism: Navigating Global Power Shifts (분열의 시대, 연대를 위한 길: 국제 협력의 회복과 다자주의의 재구성)

○ 일시: 5월 6일 11:15-12:15

○ 좌장 및 토론자

- (좌장) Soraya Sarhaddi Nelson, Host Common Ground
- Cheir Bustos, Former Congresswoman; Chair of the Political Arm of House Democrats, and Senior Leader in Congress, U.S. House of Representatives
- Maria Fernanda Espinosa Harces, Executive Director, GWL Voices for Change and Inclusion; 73rd President, UN General Assemblies; Former Minister of Foreign Affairs, Republic of Ecuador(virtual)
- Philani Mthembu, Executive Director, Institute for Global Dialogue(IGD)
- Henry Wang, Founder and President, Center for China and Globalization(CCG)(Virtual)
- Bryan Lanza, Former Communications Director for President Donald J. Trump's Transition Team

○ 배경 및 목적

- 오늘날 국제 사회는 다층적이고 상호 연결된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, 지정학적 갈등의 심화 및 기후변화라는 실존적 위협과 더불어, 팬데믹 이후 글로벌 거버넌스의 불신이 확대되고 있음.
- 특히 미국, 유럽 등 주요국 내 정권 교체 및 정치적 불확실성은 국제 협정의 안정성 자체를 위협하고 있으며, 국제 협력 메커니즘은 갈수록 긴장과 신뢰 부족에 시달리고 있음.
- 본 세션은 글로벌 협력의 재편 방향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, 국가, 기관,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공공재를 지키는 실천적 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둠.

○ 주요이슈

- 지정학적 갈등의 격화: 미·중 전략 경쟁, 우크라이나 전쟁, 중동 분쟁 등으로 국제 협의체 내 정치적 마비 현상 가중
- 글로벌 공공재에 대한 신뢰 붕괴: 팬데믹 대응, 백신 분배, 기후 자금 약속 미이행 등으로 글로벌 연대의 실패 경험 누적, 특히 글로벌 남반구의 불만과 포용성 요구가 커지고 있음
- 다자주의의 재구성: ‘실용적 다자주의’(Pragmatic Multilateralism)로 전환
- 기후, 보건, 식량안보 등 구체 문제 중심의 협력
- G7, G20, BRICS, AIIB, CPTPP 등 지역/이슈 중심 협의체 활용
- 사회적 회복탄력성(Social Resilience) 기반 마련: 정보 리터러시 강화와 극단주의 대응을 위한 시민교육
- 다문화·다국적 포용 정책 확대를 통한 사회통합: 국제 협력의 내부 기반 강화
- 위기 대응을 위한 다자기구와 지역기구 간 역할 분담: WHO, UN 등은 글로벌 기준 설정, 지역 블록은 실행 중심 운영
- 다층 거버넌스 모델 도입: 국제기구 - 국가 정부 - 도시 정부 - 시민사회 간 수평적 연계 구조 강화
- 국제 협약의 법적 강제력 및 이행 점검 제도 강화: 기후 자금, 보건 지원, 인권 기준 등에 있어 ‘이행 책임 메커니즘’ 구축
- 공공재 중심 아젠다 설정: 식량, 물, 공공보건, 기후 안정성 등 공공재 분야 중심 협력
- 위기 공동 대응 플랫폼 설계: 다국적 비상 대응팀 및 공공재 펀드(Global Commons Fund) 설립 제안

○ 결론

- 국제 질서가 분열과 갈등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오늘, 다자주의는 단순한 원칙이 아니라 존립 가능한 실용적 구조로 재편 필수
-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, 문제 중심의 협력, 참여 기반의 거버넌스, 공공재 중심의 연대 필요

(6) Measuring Human Flourishing (Human Flourishing의 측정방법에 관한 고찰)

○ 일시: 5월 6일 12:15-13:15

○ 좌장 및 토론자

- (좌장) Uwe Heuser, World Economic Correspondent, Die ZEIT
- Dennis J. Snower, Founder and President, Global Solutions Initiative
- Sabina Alkire, Director of the Oxford Poverty and Human Development Initiative, Oxford University
- Martine Durand, Member of the French Statistics Authority; Former OECD Chief Statistician
- Timothy Lomas, Psychology Research Scientist on the Human Flourishing Program, Harvard University
- Kiki Papachristoforou, Associate Principal of Gbl Analytics, Gallup
- Nicola Brandt, Head of the OECD Berlin Center

○ 배경 및 목적

- 기후 변화, 불평등, 금융 불안정과 같은 심화되는 글로벌 위기는 단지 기술적·경제적 실패가 아니라, 자본주의 시스템의 도덕적 기반이 결여된 구조적 한계를 반영
- GDP 중심의 성장 지표는 사람과 지구의 진정한 안녕(well-being)을 포착하지 못하고 있으며, 이는 잘못된 정책 유인과 사회적 가치의 왜곡으로 나타남.
- 오늘날 필요한 것은 단순한 성장을 상승이 아닌, 사람, 공동체, 지구의 조화로운 번영을 아우르는 총체적 접근 방식
- 동 세션은 경제, 사회, 환경 세 영역을 통합한 새로운 번영 지표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며, 이를 통해 글로벌 정책체계가 전환을 모색할 수 있는 방향을 기대

○ 주요이슈

- GDP 중심 모델의 문제점: 환경 차원에서 본다면, GDP는 자원 고갈과 탄소 배출을 '경제활동'으로 간주하여 기후 악화를 유인하며, 사회소득 측면에서 본다면 불평등, 건강, 교육, 주거 등의 질적 요소는 반영되지 않음.
- GDP는 경제 규모만을 반영할 뿐, 삶의 질이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보는 거의 제공하지 않음.
- 이는 정책 우선순위의 왜곡으로 이어져, 구조적 불평등과 환경 위기를 지속·심화시킴.
- '국가 웰빙 예산'(Well-being Budget) 도입 필요: 뉴질랜드, 핀란드, 스코틀랜드 등 선도국 사례를 기반으로 예산 우선순위 재편 사례 있음.
- 국가 통계 시스템 개편: 기존 경제지표 외에 웰빙 측정지표를 통합 운영해야 할 필요성
- 국제 거버넌스와 협력: OECD, UNDP, IMF 등과 연계한 국제 웰빙지수 표준화 필요

- G20, BRICS, 세계은행 내 웰빙 기반 정책 프레임 논의 채택 필수

○ 결론

- 현재의 글로벌 위기는 단순히 경제 시스템의 실패가 아니라, 도덕적·철학적 기반의 부재에서 비롯된 구조적 위기
- 이제 우리는 사람과 지구의 안녕을 중심에 둔 '진정한 번영'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해야 함.
- GDP 중심에서 벗어나, 웰빙 기반의 국가 성과 측정으로 전환이 필요하며, 경제·사회·환경 3대 축 통합 지표 체계 구축 필요성
- 국가 차원의 예산·통계 개혁 및 국제적 협력 구조 정립이 필요함.

(7) T20 Session: Preventing the Looming Sovereign Debt Crisis (T20 세션: 다가오는 국가 부채 위기 예방하기)

- 일시: 5월 6일 14:00-15:15

○ 좌장 및 토론자

- (좌장) Remy A. Weber, Program Manager, GSI.
- Riska Koopman, Policy Research and Advocacy Officer, African Forum and Network on Debt and Development(AFRODAD)
- Richard H. Carey, Senior Fellow, African Center for Economic Transformation
- Yunnan Chen, Research Fellow on Development and Public Finance, ODI Global
- Franco Bruni, President, the Itali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Political Studies(ISPI)

○ 배경 및 목적

- 전 세계 공공부채는 COVID-19 팬데믹, 고금리 환경, 지정학적 불안정성에 의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, 현재 중저소득국(MICs & LICs) 중 상당수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거나 위험에 처해 있음.
- 2024년 기준, 약 60개국이 부채 재조정 또는 탕감을 논의 중
- 고금리와 통화 강제로 인해 채무 상환 비용이 폭등, 필수 서비스 예산 잠식
- 녹색 전환과 SDGs 달성을 위한 재정 공간의 붕괴되고 있으며,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시스템 리스크가 증대
- 특히 미국, EU, 중국 등 주요국의 고부채가 차기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 있음.

○ 현재 글로벌 부채 구조의 병목 요인

- 채권자 다변화: 민간 채권자, 중국 등 비전통적 양자 채권자의 부상으로 협상 복잡성 증대
- 조정 프레임워크의 취약성: G20 공동 프레임워크의 참여율, 투명성, 이행 속도 모두 미흡
- 상환 부담의 불균형: 채무국이 상환 유예나 탕감보다 긴축을 선택하게 유도
- 기후 연계 재정 결핍

○ 부채 위기의 다차원적 영향

- 경제적 영향: 외환 부족, 투자 위축, 통화 불안정 및 사회 인프라 투자 중단 (교육·보건 축소)
- 사회적 영향: 대규모 실업과 사회 불만 증가, 사회적 안전망 취약 국가에서 빈곤율 급등
- 환경적 영향: 기후변화 대응 역량 약화 (그린 인프라 투자 축소) 및 녹색 전환을 위한 금융 여력 고갈

○ 결론 및 제안

- 다자간 법적 프레임워크 구축: IMF 및 UN 주도 하에 공식 채권자·민간 채권자 공동 참여 구조 확립
- 의무적 채권자 협상 참여 규정: 민간 채권자의 디폴트 회피 전략 차단
- 디지털 투명성 플랫폼: 채무, 상환 일정, 금리 등 실시간 공개 시스템 구축
- 기후 연계 부채 이니셔티브 도입: 기후-부채 스왑 (Debt-for-Climate Swaps) 등 부채 경감 조건으로 기후 행동 투자를 유도하거나, 기후·SDG 관련 투자를 위한 조건부 유예 조항 도입
- 국제금융기관(IFIs)의 역할 재정립: IMF, 세계은행 등은 부채 취약성 평가에 기후·사회 지표에 포함시키거나, 기후 적응국가에 대해 특례적 유예 조건을 제공, 특히 이를 위해 G20, BRICS, AIIB 등 신흥 블록과의 공조를 강화해야 할 필요

(8) T20 Session: Disrupted but Still Standing: What is Next for the World Trade System? (T20 세션: 혼란속에서도 여전히 견재하다: 세계무역 체제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?)

○ 일시: 5월 6일 15:30-16:30

○ 좌장 및 토론자

- (좌장) Dharmendra Kanani, Chief Spokesperson and Chief Operating Officer, Friends of Europe
- Patrick Costello, Managing Director, Mercury Public Affairs Vera Thorstensen, Professor, Getulio Vargas Foundation; WTO Chair Holder in Brazil
- Axel Berger, Deputy Director, German Institute of Development and Sustainability; Co-chair of the Task Force on Trade, T20 South Africa
- Vera Thorstensen, Head, Center on Global Trade and Investment, FGV; Former Chair, WTO Committee of Rules of Origin

○ 배경 및 목적

- 지난 수십 년간 세계화는 효율성과 통합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으나, 현재 무역 환경은 지정학적 긴장과 전략적 계산에 의해 급격히 재편되고 있음.
- 관세, 보조금, 수출 통제가 확산하고, 디커플링(Decoupling), 디리스크화(Derisking), 프렌드쇼어링(Friendshoring) 전략이 부상
- WTO 등 다자 체계의 약화, 양자 및 지역 협정 중심의 다층 무역 체계가 확대, 특히 WTO 분쟁해결기능(DSP)의 사실상 정지, 규범 형성력은 쇠퇴
- 무역 장벽 역시 확대되고 있는데, 산업 보조금, 전략 부문 보호, 반도체·배터리 등 기술전쟁이 심화
- 미국 중심의 가치 동맹 기반 공급망 재편, 즉 “민주주의 vs 권위주의” 무역 구도가 형성되고 있음.

○ 주요 이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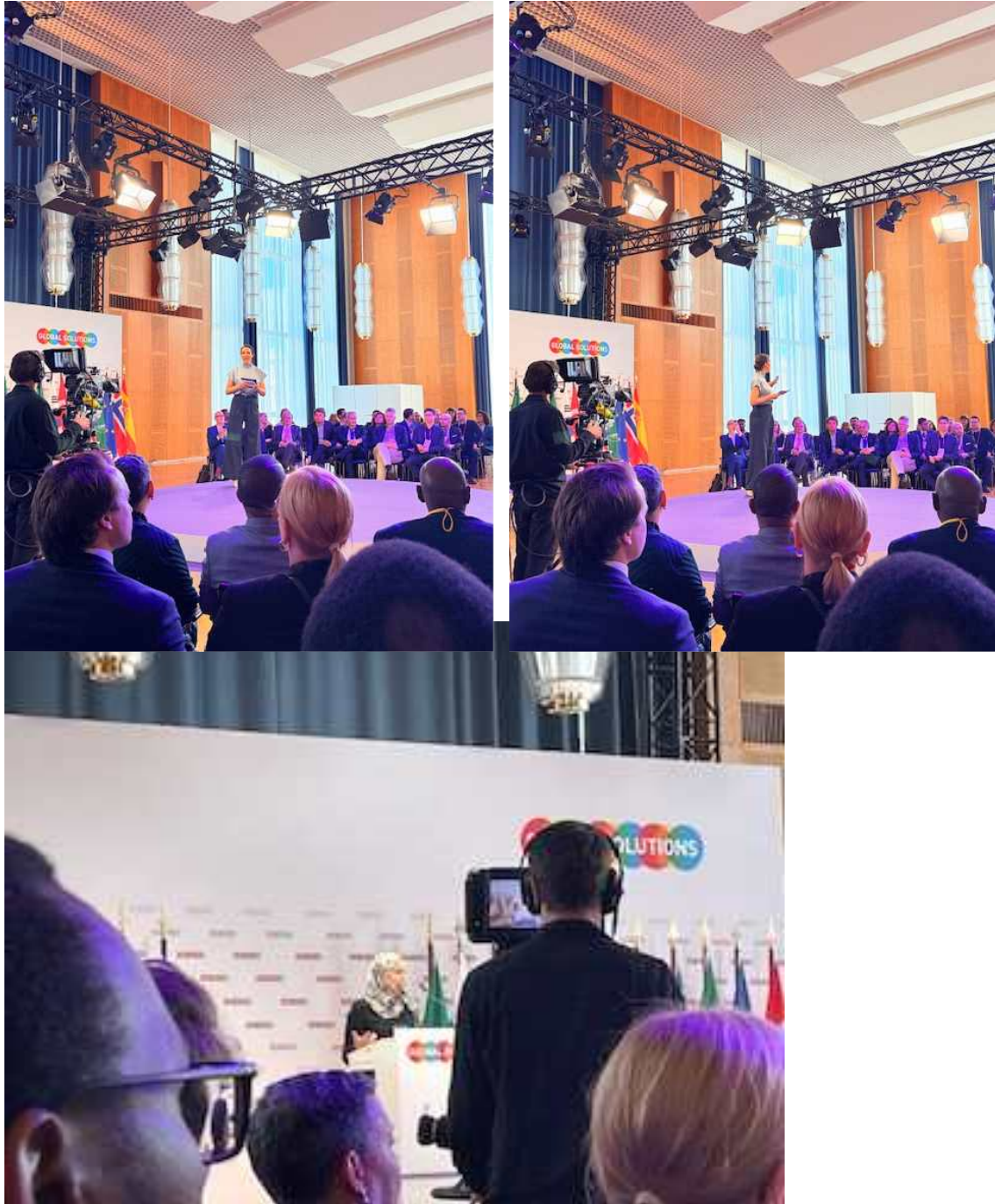
- 전략 산업 선별과 ‘스마트 보호주의’: 반도체, 배터리, 재생에너지, AI, 바이오 등 ‘기술·안보 핵심산업’ 선정
- WTO 허용범위 내에서 성과 연계형 인센티브 제공 (R&D, 고용창출 등)
- 단일국 의존 탈피 위한 인도-아세안-남미 대상의 공급망 구축 지원
- ESG, 노동기준 등과 연계한 무역규범 설정, 특히 이에 관한 정치·사회적 정당성 확보가 필요함.
- 다자·지역주의 전략의 병행: WTO 개혁을 지지하되, WTO 중심주의에 고립되지 않도록 다층적 협상 채널 운영 필요
- 양자/지역 FTA 전략의 목적성 강화: 단순 관세 인하를 넘어서 공급망 안정·기술협력·지속가능성 포함
- 중소국 중심의 규범 연합(예: Digital Trade Agreement, Carbon Club) 참여 및 선도

○ 결론

- 세계화가 끝났다고 말하기 보다는, 무역의 지정학화가 진행되고 있으며, 복수 체계가 병존하는 ‘분절된 세계화(disjointed globalization)’로 재편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.
- 이에 따라 무역 리스크 다층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, 공급망 탄력성과 가치 기반 거래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.
- 더불어, 개도국 포용과 GVC 재통합 전략을 강화하고, 민간 부문의 전략적 적응을 위한 정부-산업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함.

5 (참고) 현장 사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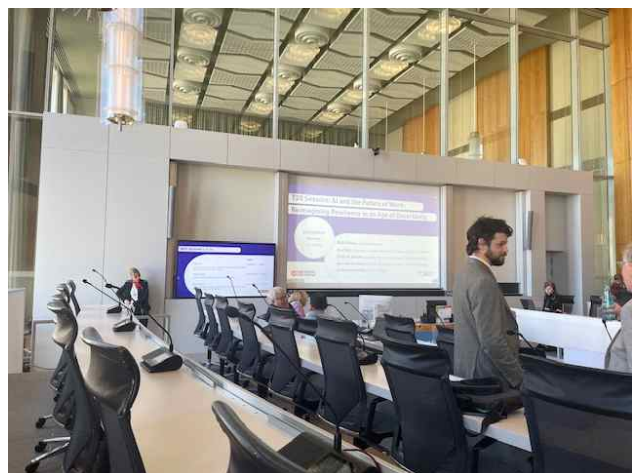
(1) Greeting Claudia Bruninghous(Head of Activities and Events), 키노트 Alaa Murabit(Executive Director of Sustainable and Resilient Growth)



(2) 오프닝 Dannis J. Snower(Founder and President, GSI)



(3) 회의실



(4) 포럼장 내외부

